

일레인 필립스 박사, 미가, 순환도로 밖의 선지자 , 7회, 미가 6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미가서, 순환도로 밖의 선지자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일레인 필립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7부, 미가서 6장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6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미가서의 부분 중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다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6장 8절이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페리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통치자에 관한 예언이 분명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실제로 신학적 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정 장은 언약에 기초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신학적 알리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언약관계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주님과 백성이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이상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특히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적과 그의 백성을 향한 그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4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 하나는 주님의 길을 배우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그분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6장에 들어서면서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언약 관계의 일부는 이 사람들이 관계 내에서 생활할 때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잘 인식하는 것입니다. 순종, 형벌, 불순종에 대한 축복을 우리는 확실히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그것들은 6장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입니다.

6장 시작 부분에서 주님께서 미가를 통해 그들을 언약 논쟁에 부르실 때,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공식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미가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점은 사람들이 불순종했을 때 깨어진 언약을 다루기 위해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혐의를 제기합니다. 언약 논쟁이 있을 것이고 6장은 그것에 관한 전부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징벌에 대해 경고하고, 주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실 만큼 그 징벌은 합당하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회복에 대한 약속과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것은 미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언하는 메시지입니다.

미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사법에 관해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은 6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사적, 신학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는 절제된 암시일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부르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선언은 매우 간단하지만 학교 다닐 때 치던 빈칸 채우기 시험을 기억한다면 때로는 많은 것을 기억하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도와 목적에 맞게 미가와 주님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에 관해 빈칸을 채우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미가서에서 보았듯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변하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과 8절에서 특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것이 없지만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때로는 히브리어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주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6장의 9절과 10절에서는 약간 멈추겠지만 최선을 다해 번역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다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약 논쟁을 부르면서 6장으로 들어갈 때 이전에 말한 모든 것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미가는 그들에게 경고했으며, 이러한 역사적이거나 예언적인 장면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레이더 화면에 다시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는 다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죄를 범하고 우리는 세펠라에 있는 우리 성읍들을 위하여 애곡합니다.

2장, 토라는 그들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측면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법과 모든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2장은 언약을 크게 깨뜨리는 끔찍한 불의, 폭력, 학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은 계속됩니다.

대신에 사람들을 올바른 행동으로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들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것이 없어야 할 평화에 대한 예언적 선언이든 다른 것이든 돈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3장은 여호와의 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로 걷기 위해 시온으로 모여드는 많은 나라들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은 중요한 것이며 행동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은 실제로 5장에서 계속되며, 남은 자들과 그들이 견디게 될 고난과 함께 말입니다. 그것은 목자와 왕의 2절에 나오는 약속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심판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성벽이건, 성읍이건, 요새이건, 말과 병거이건, 아니면 어떤 종류의 우상숭배에 대한 충성이건 간에, 물론 매우 불안정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6장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밖으로 내보내서 이 장을 작은 부분으로 세분화하기 전에 전체 장의 발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혐의를 제기하실 것이며 증인을 부르실 것이며 그는 검사가 될 것입니다. 피고인. 이것은 이제 정점에 도달한 심각한 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가 자신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고 나서 하는 일 중 하나는 내가 당신을 위해 한 일을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역사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짧지만 맵소사, 그들은 모든 공백을 알고 빈칸도 채워야 합니다.

글쎄요, 주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성약 논쟁에 있어서 아마도 양측 모두 발언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는 사람들, 피고인, 또는 그들 중 한 사람, 아마도 대표적인 연설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까요? 조금은 뻘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입회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성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일종의 구조화된 응답 전례를 바랐습니다.

분명히 대답은 상당히 다릅니다. 다음 부분은 아마도 책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일 것입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러면 물론 거기에는 매우 간결하고 완전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잠시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전환이 일어나고 여기서 상황이 다시 조금 어려워집니다.

9절. 글쎄요,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이 장은 그들이 잘못된 일, 모든 면에서 언약을 어긴 일,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더 많은 비난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알아야 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당신이 오므리 집의 율례를 지키기에 정말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므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풀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요를 염두에 두고 언약이 존재합니다.

분쟁이 진행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소환장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증가. 이제 물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듣게 되어 있는 사람은 미가인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걸까요? 일어나서 산들과 논쟁을 벌여라. 언덕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소환장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명령이 아마도 미가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하며,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 집행의 중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Doug Stewart의 말을 인용하여 이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증인을 소환할 사람이 될 것이고, 산도 이에 동참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산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언덕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미가.

아마도 이것이 그에게 전달 된 이유 일 것입니다. 꽤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인 갈비뼈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논쟁이나 비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송으로 번역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현재 이 모든 것에 대한 논의는 소송이라는 단어를 좀 더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넓게는 혐의가 있는 분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동사와 명사 모두로 사용되며, 많은 선지자들이 이 특정 인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불순종한 백성, 제멋대로인 백성에게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최초 소환입니다.

미가야, 들으라, 언덕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소환의 두 번째 부분은 2절입니다. 오 산들아, 들으라.

산이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 역시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산들아, 주의 명령을 들으라, 견고한 자들아, 땅의 견고한 기초들이여.

영속하는 자들은 덜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 용어이지만 평행하며 이것이 땅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갈빗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논쟁을 벌이시며 이스라엘과 갈비뼈, 동사, 다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준 공식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부르심을 받은 성경의 증인들이다. 우리의 더 넓은 문화적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이 조약을 맺을 때, 국제 조약이 체결될 때 동일한 종류의 형식적 구조를 따랐으며, 더 넓은 범위의 자연 현상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 하늘, 바람, 땅, 구름, 바다 등이 있지만 여기 성경 이야기에서는 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이지만 미가에게는 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은 침묵의 관찰자이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속력이 있어서 거기에 견고함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한 가지 더 던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산과 언덕은 지속적인 침묵의 관찰자입니다.

그들은 너무 빨리 지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듣고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매우 흥미로운 의인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덕이 손뼉을 치는 등의 일이 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지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능한 지리적 메모입니다.

아마도 미가가 이런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면, 그의 말이 그의 주변 언덕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자연 원형 극장에서든 연설해 본 적이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반향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반향 효과가 있으며 아마도 그것도 그것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하는 관찰자이지만 듣고 있고 어쩌면 그들이 하는 것처럼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음, 1절과 2절입니다. 3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정말 열정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그것은 언약이다. 내 백성아,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그리고 물론, 다음 전치사는 흥미롭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혹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그것은 어느 쪽으로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고 그가 그들에게 그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청한다면 아마도 그들이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그들에게 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바쁘게 공급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치사를 사용하여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다음 질문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지치게 했습니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만한 것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만한 게 있나요? 대답은 '아니요'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그들은 그가 그들을 위해 해준 일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미가가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소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제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답해주세요는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대답해주세요. 그는 실제로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언약 논쟁의 맥락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라는 뜻입니다.

할 말이 있다면 감히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세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제 그가 말하는 사실은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그것은 몇 가지 행위와 주님께서 그분의 방법 등을 통해 실제로 행하신 일, 즉 그분의 의로운 행위를 다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의를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8절).

그래서 여기에는 언어적, 개념적 연결이 있습니다. 글썄요, 그들이 주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구속했다.

다시 한 번 평행 진술을 하면, 이집트는 종살이의 집이고, 당신을 길러내고,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함께 나오는 곳은 선지자서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리암은 다른 어떤 예언서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미카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인용문에 밑줄을 쳤는데, 가져온 것보다 더 강했습니다. 종종 국가 설화가 낭독될 때 나는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시내산에 가서 토라를 받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당신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도착을 의미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속박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람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그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완전한 진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적 서사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흥미롭게도 신명기 29장에는 광야 세대가 사라진 후에 모세가 토라를 다시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4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세기 유대인 성서 주석가 라시(Rashi)가 있는데,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는 모든 세대가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해석입니다. 시내산에 있는 모든 세대에는 그곳에서 기업 현실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라시와 동조하고 싶지 않더라도 시편에 있는 성경 본문에서는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78편 4절입니다. 시편 145편은 모든 세대에 반복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저는 여러분께 긴 시편인 시편 78편의 한 구절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역사, 그분과 그분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 반역이 가미된 은혜에 대해 낭송합니다.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구원 역사 시편을 언급하는 이유는 조금 후에 106편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래를 자주 부르며 국가적 서사를 이어가는 문화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시편은 그들이 그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암송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그는 그들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도자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시점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암울한 리더십과 대조되도록 의도되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끔찍한 재판관, 끔찍한 제사장, 형편없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희생적인 모세와 아론으로 구현된 그들의 상징적인 리더십을 기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미리암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대조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형편없는 그들 자신의 동시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발락에게 절했거나 발락에게 절을 하려고 했던 발람에 대해 주님께서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사건에서 상당히 대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경제적인 것에 기초한 자신의 이익으로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에 관해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언급합니다. 사무엘이 현장에서 물러나기 전에 사무엘이 역사를 검토하는 사무엘상 12장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낭송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언급하고 시편 105편도 언급합니다.

Micah가 Miriam을 추가하는 제안입니다. 그녀 역시 구속 서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이례적이다. 미가는, 아시다시피, 그가 자신의 예언에 특이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미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심을 끌 것이며, 미리암은 매우 흥미로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일 강둑에 서서 갈대 사이로 모세를 운반하는 작은 배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구원의 노래인 모세의 노래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르친 후에 그녀도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지자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글썄요, 제가 조금 전에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제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떻게 빈칸을 채우느라 바빴어야 했는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전화했어요. 내 백성들이여, 기억하라. 와,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보세요.

모압 왕 발락이 행한 일을 그가 권고하였느니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는 첫 번째 부분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속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지도자들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빨리 지나갑니다.

모압 왕 발락이 조언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내용을 조금 풀고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제외되는지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흥미로운 말씀이군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좋은 조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담하는 사람은 발락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그가 왕이고 그의 조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적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그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지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고 갑자기 발락으로 달려가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이 이집트와 약속의 땅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미가는 조금 후에 6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각 단계에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산이 있습니다. 글세, 맵소사, 거기에 주어진 토라, 확립된 관계 등.

카데시는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물을 제공했습니다. 신명기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을 우회하거나 그것을 통과하여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혼과 옥, 그리고 모압을 물리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애굽과 발락에서 나오고 올라오는 그 사이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기에 작은 지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나이 반도이고 이것은 미가가 말했듯이 노란색 선으로 압축된 부분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모든 의도와 목적을 위해.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쓴 물이 있던 곳에 어떻게 물을 주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르비딴에서 그가 그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지를 본 것처럼 그들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 건조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광야를 건너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과 정탐꾼을 보냈는데도 잘 풀리지 않아서 40년을 더 감옥에 갇힌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돌아서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갑자기 북쪽으로 돌이지 아니하고 40년 후에 북쪽으로 돌이켜 에돔 국경을 따라 마침내 모압으로 향하여 마침내 그들이 살던 곳으로 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발람과 빌락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긴 여정이고 다소 지그재그의 여정이군요, 그렇죠? 나는 기억에 빈칸 채우기도 모두 포함한다고 제안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조금 더 해보자. 그들이 그 중요한 장소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모압과 모압 왕과 미디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서 발람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하며, 비록 발람이 빌람, 즉 발람에게 정말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서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반복적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까지와 여호수아 24장은 발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러한 저주를 무시하시고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가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민수기 2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와 선지자로 여겨진 자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꾸셨느니라.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받아 바꾸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발람이 자신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신 속에 매우 사악한 행보를 나타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발람이 식탁 밑에서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바알브올이라는 곳에서 끔찍한 대패가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31장에 이어 제가 여러분을 위해 메모한 1장부터 16장까지의 구절은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브올의 바알을 숭배하도록 했던 바알브올에서 일어난 일과 그곳에서 일어난 일과 절대적인 사건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끔찍한 배교가 있었던 이유는 발람이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터가 말한 것에 근거하여 이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이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므로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테이블 밑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 일을 합니다. 어쨌든, 미가의 청중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척하는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발람의 조언은 진리가 위험하게 혼합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끔찍하고 끔찍한 거짓과 끔찍한 조언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발람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건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싯딤과 길갈을 기억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싯딤에서 길갈로 가는데 있어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Abba Shittim과 나는 그들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곳은 그들이 실제로 요르단을 건너 땅으로 오기 전 마지막 정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길갈은 그들이 기념 돌을 세울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물을 막아 마른 땅으로 건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마른 땅을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기사에는 여호와께서 갈대바다를 불어서 날려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면 모든 백성으로 알게 하고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간단히 말해서 구원 이야기 전체, 인도와 보호, 그리고 싯딤에서 일어난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임시 보호 기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러한 추가적인 의미 중 일부를 제안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분석한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항적이었지만 그는 이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협회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말했다. 제가 바알브올에서 간략하게 간략하게 스케치한 배도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싯딤, 아벨 싯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슬프고 추악한 사건입니다. 길갈. 아, 우리는 길갈을 생각합니다.

아, 그들은 이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어는 원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길갈에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내장되어 있다는 암시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 나는 여기서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울이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물론 우리는 길갈에서 시간의 끝이

거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이 이르되 나를 기다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 나아가 호세아와 아모스는 둘 다 길갈에서의 부적절한 예배를 언급하고 있으며 호세아 9장 15절은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은 길갈을 언급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글썄요, 그게 역사 수업이예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주님의 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종류의 것을 언급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 논쟁에서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그들을 위해 행한 모든 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사무엘상 12장에 대한 또 다른 언급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도전하면서 그들은 왕을 원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서 그들에게 왕을 주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표현인 여호와의 의로운 행위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다시 미가서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 교환은 분쟁의 다음 부분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것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으며 그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인이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린 바와 같이, 이 다음 부분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게 될 곳, 희생 제사로 그들의 죄가 속죄된 곳, 그리고 그들이 배운 모든 것과 관련됩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

직분이 제정되었을 때. 그러나 제가 지적했듯이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의 기억은 정말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범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잘못 표현되고 남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사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암시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절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누군가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Micah는 그 누군가를 대표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조, 의도, Micah가 그것을 어떻게 대표하는지,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일부인 것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신성한 임재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역사적인 민족으로서 줄곧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토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제기할 때 마음의 최전선에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요약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그들의 차례입니다.

여기있어.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가져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즉, 나는 어떻게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입회식이라고 부를 것인지가 질문의 초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 사람이 올바른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번제물과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흥미롭네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시편을 아시는 분이려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에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가고 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온으로 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시편을 읽을 때 분명히 그 시편을 읽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 그림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전체 인물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깨끗한 사람, 어쨌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주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의 존재의 일부입니다.

글쎄요, 분명히 우리는 그 시편을 읽으면서 그것이 실제로 미가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흥미롭다. 절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임재 앞에 완전히 경배할 수 있습니까?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사람이 제시하는 제물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토라에 따르면 이러한 속죄 희생은 매우 필요합니다.

희생을 안고 와야 했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속죄하기 위해 그것을 행하는 데는 전체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음, 그것은 그것의 일부였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전체 번제, 올라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1년 된 송아지, 둘 다 값이 비쌉니다. 특히 이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예배 상황의 중개자인 제사장들이 서품을 받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예비 예배자가 실제로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입니다. 합리적인 금액의 자금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원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음 구절은 주요 과장법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가길 원하십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와야 하나요? 이제 그는 어쨌든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께서는 천 마리의 숫양과 수많은 시내의 기름을 원하시며, 그러면 내가 나의 범법으로 인해 내 장자를 드러야 합니까? 내 배의 열매는 내 영혼을 위한 속죄제물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쌍곡선 진술이다. 그리고 확실히 당신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물에는 기름을 섞었습니다. 성소의 등불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한 관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이 기름을 급류처럼 가져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Rivers는 번역이 너무 온화합니다. 그는, 내가 급류, 수많은 기름의 흐름을 가져와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과장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종류의 영향을 미치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내 범죄로 인해 내 맏아들을 바쳐야 합니까? 그런데, 장자를 바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인가? 아니면, 그렇긴 한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게 내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질문자가 그러한 종류의 질문을 한 데 대한 길고, 추악하고, 추악하고, 전통적인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나요? 슬프게도 여기에 시편 106편이 있습니다.

장편시편, 그 중간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과 딸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무죄한 피, 곧 자기 아들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땅은 그들의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편 106편은 오랜 역사를 지닌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언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아하스는 배교자들 중의 배교자로서 그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넘겨준 그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나중에 므낫세 왕도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당신은 계곡과 돌출된 바위 아래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비유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국가적 추악한 하복부 이야기의 일부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잠깐 언급하자면, 번제를 뜻하는 단어인 올라(ola)는 여러 문맥에서 인간 희생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동물을 지칭하지만 그림의 일부인 인간 희생이 있을 때 동일한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소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미가는 이 잠재 청중에게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왜 동물과 기름을 드리는 것에서 장자를 드리는 일까지 그렇게 급진적으로 확대합니까? 몇 가지만 포즈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하나의 확실한 대답은 아니지만 아마도 미가가 냉소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것의 일부가 되어야 할 내용을 아주 아주 알파하게 기억하고 단지 범주만 골라내는 스타일의 누군가의 입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다는 사람들의 과장되고, 확실히 무지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조가 좋지 않고 나쁜 기억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머릿속에 종교적 범주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는 두 번째 가능성은 질문자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열광적으로 크레센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드는 희생부터 매우 부풀려진 숫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뻑뻑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의 접근에 겁에 질린 패닉의 얼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달래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돌아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친절해지도록 갑자기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미가는 그들이 그런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랑하는 자녀의 희생이 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개념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이미 암시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말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나는 사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유물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아마도 왕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될 것입니다.

더 넓은 문화적 맥락에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희생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이 이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읽을 때쯤이면 당황하고 통제 불능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과는 달리 미가를 통해 매우 차분하고 신중하며 일관성 있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언젠가는 외울 것입니다.

아담아, 그는 너에게 말했고 나는 일부러 그것을 아담으로 남겨두겠다. 뭐가 좋아?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과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을 행하는 것 외에 무엇이냐? 적절한 번역이네요. 그리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제 그 내용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종의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더 넓은 인간의 책임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일반은총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께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언약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앞 장에서 배운 교훈, 즉 완전한 정의를 행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의 일부였던 것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요구 사항의 측면에서 보면 정의입니다.

mishpat 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인 헤세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언약의 기초가 되며, 분명히 뒤따르는 책망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더 이상 보지 않을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이라는 용어 사이에 약간의 연결을 만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헤세드를 적절하게 번역하는 단어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헤세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임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헤세드는 여기서만 사용된다.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죠?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용어가 함께 사용되어 상당히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가는 평소처럼 청중을 놀라게 할 정도로 단어와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몇몇 사해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이유로 잠시 후에 그것들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떻게든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내용은 겸손하게 번역됩니다.

단어는 hatzaneh 입니다. 사전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여기와 잠언 11장에서만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잠언 11장의 교만과 어떤 면에서 대조됩니다. 그래서 겸손이 나오는 곳이 아마도 여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규칙이라 불리는 쿰란 본문에 나옵니다. 매우 일반적인 텍스트입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것 중 하나인 동굴 1입니다. 그리고 그 용법을 골라내면 그 자체로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탐색이 끝나면 그것은 비슷하거나 현명한 예의 또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모든 측면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의 관계를 사랑하고, 그런 다음 현명하고 신중하며 경솔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걷는 것입니다.

이제 메모만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특정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주요 요점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든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글썄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이 구절과 경전의 다른 구절을 읽고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러한 희생의 요구 사항과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이 구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요구 사항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과 연관지어 볼 때,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밀과 박하와 커민의 십일조를 바치라고 훈계하신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들은 아주 작고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을 우회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감정적인 희생과 의식, 의식에 대해 아모스는 이에 대해 언급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아, 우리는 조금만 움직여야 해. 나는 도전적인 다음 절로 넘어가서 장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좋지만 번역은 이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번역. 주님의 음성이 그 도시를 부르실 것입니다.

건전한 지혜. 그는 누가 두려워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동사는 본다(see)이지만 두려움을 쉽게 바꿀 수 있고, 당신의 이름을 본 다음, 오 부족과 도시의 집회를 듣습니다.

또는 번역이 어렵고 텍스트가 어렵기 때문에 막대에 유의하세요. 무엇? 지파들아, 들으라. 지팡이와 그것을 정하신 이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자, 우리가 이것에 시간을 할애한다면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 세그먼트에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부르십니다. 그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부르고 있으므로 그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들어야 하며, 들으라는 전체 요청은 이 장의 시작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파인지 지팡이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히브리어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집회에 관한 것이든 약속에 관한 것이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듣기를 원하며, 그것은 정의를 행하지 않고 헤세드를 사랑하지 않는 일로 이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 장의 나머지 부분은 비난입니다. 이번에도 어려운 히브리어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탤릭체로 표시된 내용은 모두 어려운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악인의 집을 간과할 수 있겠느냐? 좋아요, 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악의 보고. 글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불공정한 거래로 온갖 돈을 모았다면, 그들은 악의 보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저주받은 빈약한 에바입니다. 11절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악한 저울이 다니고 속이는 돌이 담긴 자루가 있는데 나 여호와를 정결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정리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모든 종류의 경제적 착취, 경제적 허위, 주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것들입니다.

12절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예루살렘일 것이다. 그녀의 혀는 배신이다. 누군가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설명 사항입니다. 우리가 본 첫 번째 절에서 house는 두 번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house is beit 일 수도 있지만, 발성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bat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교롭게도 액체 측정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액체 측정이든 건식 측정이든 측정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언급하셨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일, 즉 정의를 실천하는 일과 정반대입니다.

가능한 관찰은 웃시야 치하의 경제 발전이 동반되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이 상업 영역에서의 음흉한 거래가 동반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과 사물에 사로잡힌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짧은 측정, 부정직한 저울.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 부대 속에 말한 예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추가 사항을 언급한 다음 제가 암시한 대로 계속하겠습니다. 비록 그녀가 단지 대명사일 뿐이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붙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한 도시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도시는 폭력과 기만, 배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는 거짓말하는 입술이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임을 잠언서에서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 나는 강조하여 너희를 쳐서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탤릭체로 번역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며,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나, 나, 너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어두워질 거예요. 당신은 무언가를 시도하고, 도달하고, 추월하고, 아마도 보안 장소에 도달하려고 할 것이지만 보안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한 사람들을 나는 칼에 넘겨주겠습니다. 이제 저는 잠시 후에 그 의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5절, 너희가 심고 거두지 못하리라.

너는 감람나무를 밟고 기름을 바르지 말며 새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안다면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이 일종의 특징이며, 우리는 그 중 일부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적인 심판자는 형벌을 내릴 것이며 이러한 심판이나 형벌은 곧 언약의 저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나라를 압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적들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그들의 표준 작물인 올리브와 포도를 얻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번영에 대한 모든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제 전체가 망가지고 생산성이 정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올리브를 밟는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농산물 가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포도를 밟고 올리브를 짜는 일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올리브를 밟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절박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의 간단한 사진입니다.

올리브 프레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기원전 첫 번째 천년기의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예수 시대인 서기 1세기에 가깝지만, 그것이 대규모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브를 버리고 꽤 무거운 돌로 올리브를 으깨면 됩니다. 밟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주 작은 규모로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찰은. 그런데 오므리와 아합은 16a절에 오므리의 율례를 지켰습니다. 아, 그거 좋지 않아? 그들은 오므리가 하라고 한 일을 하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그들의 훈계대로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아이러니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약간의 메모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그들은 오므리 왕조가 가르쳤던 것을 따르느라 바쁜 걸까요? 바알에 대한 거짓 숭배 등.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므리와 아합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지도가 조금 있습니다. 오므리는 수도를 세웠을 때 사마리아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나 두 번째 강의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마치 지정학적으로 두 팔을 벌려 환영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모든 문화적 것들을 포용할 것입니다. 이는 페니키아와 서쪽의 다른 지점과의 연결,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페리는 지난번에 사마리아와 그곳에서 발견된 상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 만들어졌고 잘 가공되었으며 아마도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금이 풍요로운 시대였음을 나타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좋은 것 같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끔찍합니다.

나는 페니키아와 다른 지역의 사회 경제적 이점을 수용하는 전체 구조에 이미 짜여진 이것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 바알 송배를 가져왔다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의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바알브올 사건에서 그것을 보았지만 여기서는 바알을 송배하는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세벨이 조직한 나봇의 포도원을 훔치는 것, 나봇에 대한 복수와 거짓 처형,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책임이며 우리는 미가 2장을 읽을 때 그 사건이 재산 압수 뒤에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상속권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글썄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완전한 재앙을 불러오는 비결입니다. 달다.

1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멸망시키고 네 주민들을 비웃게 하리니 너는 내 백성의 치욕을 당할 것이니라 파괴와 굴욕, 그게 싹하는 소리의 전부겠죠? 치욕.

그리고 그는 내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묵상으로 마무리할 것이며 이 장과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알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종의 접선이지 접선이 아니라 6절과 7절의 내용에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분께 다가가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속죄의 필요성에 압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8절의 도전 이후에도 더 넓은 문화적 가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윤리의 정점이자 주님에 대한 놀랍고 선한 예배입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들이 어떻게 문화적 가치로 바로 가라앉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로 좋지도 않았고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십자선에 놓기 위해 우리 역시 이러한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패턴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마무리하기에는 그다지 기쁘지는 않지만, 아직 7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 6장의 끝입니다.

이것은 미가서, 순환도로 밖의 선지자에 대해 가르치는 일레인 필립스 박사의 말입니다. 이것은 7회기, 미가서 6장입니다.